

“장학금 주신 것 후회 않도록...”

고성중 · 고 총동문회 장학금 수혜 학생들 감사 편지

“감사한 마음 표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중 · 고와 더불어 고성군의 자라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고성중 · 고 총동문회 장학회(이사장 윤승근) 사무실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다섯 통의 편지가 전달됐다. 학교 행정실을 통해 장학회에 전해진 편지는 지난 2일 고성중 · 고 입학식에서 장학금을 받은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연필과 볼펜으로 직접 쓴 것이었다.

고성중 · 고 총동문회 장학회는 중학교

신입생 10명에게 각 20만원씩 2백만원을 전달하고, 고등학생은 우수 재학생 2명에게 각 2백만원과 신입생 4명에게는 각 1백만원씩을 전달했다.

임도연 학생은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참고서나 문제집, 과외 등으로 부모님께 부담을 더 얹어드리려 것 같아 죄송스런 마음도 있었다”며 “(장학금을 받고) 부모님께 효도를 했다는 생각에 행복함까지 느껴졌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민지 학생은 “정말 제가 이런 큰 액수의 장학금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실제로 받게되니 놀랍고 기뻐다”며 “저에게 장학금을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성중 · 고 총동문회 장학회는 지난해 5월 동문들이 2억원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했으며, 매년 입학식 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현식 고성중 · 고총동문회 장학회 사무국장은 “이번에 감사의 편지를 받아보고는 우리 후배들이 선배들이 마련해준 장학금을 고마워하고 모교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됐다는 것을 느꼈다”며 “앞



지난 2일 입학식에서 고성중 · 고 총동문회 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최근 장학회에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로 장학재단을 잘 운영해 모교 출신 후배들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동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간성향교 탐동부대 장병 인성교육

핵가족화와 인스턴트 시대 속에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져 동방예의지국의 명성이 날로 무색해지는 요즘 사회에서 간성향교가 군장병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전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간성향교(전교 윤근호)는 지난 14일 탐동리 5318부대(대대장 최영렬) 장병 120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간성향교 윤근호 전교와 류경렬 교회사석장을 포함해 4명이 참석해 3시간에 걸쳐 윤리, 도덕, 예절, 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



됐다. 간성향교에서는 연중 군부대와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광연 기자

여성농업인 한지공예 교육 실시

고성군은 전통문화를 계승 · 보급하고 농촌생활의 활력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건전한 취미생활을 확대하고자 한지공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총 6회에 걸쳐 농업인단체회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전통공예문화협회 한지공예 사범인 이진향 전문강사를 초청해 생활개선회원 25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한지공예는 팔각대상, 용기 등 전통 가구에 한지를 이용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교육과정으로 수강생들에게 우리고유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전통기술의 습득으로 여성농업인의 능력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광연 기자



고성사랑 실천은 고성신문 주식 갖기부터

고성신문 주주 大모집

창간 2년차를 맞아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고성신문과 함께할 주주를 모십니다. 고성신문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 고성신문 주주가 되는 방법

- 고성신문 주식을 구입하면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1주의 가격은 1만원입니다. 주주 참여는 10주(10만원)부터 가능합니다.
- 주식 구입 의사를 밝히고 금액을 입금하면 주권을 전달해드립니다. 주권은 1만원권, 10만원권, 100만원권 3가지 종류로 발행됩니다.

○ 고성신문 주주가 되면

- 고성신문 주주가 되시면 고성신문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 등에 참석해 주주로서 발언할 수 있으며, 이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연말 결산을 통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고성신문이 주최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등에 초대권을 우선 보내드립니다.

○ 고성신문 이사가 되면

- 고성신문 이사는 주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사 선거를 통해 선임됩니다.
- 이사들은 매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회사 경영 전반을 살필 수 있으며, 경영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 이사는 임기 3년의 대표이사, 감사, 전무이사 등의 임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고성신문 ☎033-681-1667